

대한민국

어디나 살기 좋아집니다

[인천]

인천은 국제적 비즈니스의 거점으로 도약하는 곳입니다. 혁신적인 인재들이 쉽게 모일 수 있도록 제반 인프라를 개선하여 경쟁력을 더욱 키우겠습니다. 인천을 동북아의 국제도시로 만들겠습니다.



인천은 수도권의 관문이자, 대중국 교역의 중심지 역할을 오랫동안 수행했습니다. 인천은 인천항과 인천공항, 그리고 송도신도시를 포함한 경제자유구역을 바탕으로 동북아의 국제도시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인천이 동북아의 비즈니스 거점이 되도록 하기 위하여 지역발전을 위한 다양한 정책이 요구됩니다. 이를 위한 첫 번째 과제로 2014년 인천아시아경기대회를 성공적으로 마쳐야 합니다. 아시안게임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인천 경제자유구역이 우리나라의 명실상부한 국제도시로 기능할 수 있도록 활성화시키겠습니다. 인천과 서울을 비롯한 주변지역과의 접근성 개선을 위하여 경인고속도로 통행료 폐지 및 지하철을 추진하겠습니다.



- | 인천 1 | 아시안게임 성공 개최 지원
- | 인천 2 | 경인고속도로 통행료 폐지 및 지하화
- | 인천 3 | 인천경제자유구역 활성화 및 접근성 제고
- | 인천 4 | 아라뱃길 활성화 및 주변개발을 통한 물류거점 조성
- | 인천 5 | 인천 장애인 평생교육관 건립
- | 인천 6 | 인천 도시철도 2호선 조기 개통
- | 인천 7 | 인천항 경쟁력 제고

아시아게임 성공 개최 지원

2014년 인천아시아게임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지원을 확대하겠습니다.

■ 2014 인천아시아경기대회 적극 지원

경인고속도로 통행료 폐지 및 지하화

인천지역을 남북 및 동서로 가로막아 지역균형발전을 저해하고, 출퇴근 시간대 교통량 집중으로 사실상 고속도로 기능을 상실하였으며, 총 투자비의 2배 이상을 회수한 경인고속도로를 무료화 하고, 인천지역 발전을 위해 지하화하여 통행의 편리함을 더하겠습니다.

■ 유료도로법 개정

■ 통행료 폐지 및 지하화 추진

인천경제자유구역 활성화 및 접근성 제고

환경분야 최대 국제금융기구인 GCF 사무국 유치로 계기로 인천 경제자유구역을 활성화하고 녹색성장 정책을 선도하는 글로벌 IT융합 저탄소 녹색도시로 발전시키겠습니다. 또한 인천경제자유구역 활성화를 위해 지하철 7호선을 청라 국제도시로의 연장을 추진하여 접근성을 강화하겠습니다.

■ GCF 관련 산업집적화로 글로벌 녹색산업 허브로 육성

-세계적 수준의 Green-MICE(회의·관광·컨벤션·전시회) 인프라 구축

■ 최고 수준의 쾌적한 외국인 정주여건을 조성

■ 서울 지하철 7호선 청라국제도시 연장 추진

아라뱃길 활성화 및 주변개발을 통한 물류거점 조성

수도권 물류비 절감 및 친환경물류를 촉진하고, 다양한 친수공간 조성을 위해 경인 아라뱃길을 추진하였으나, 아직 운영실적은 저조한 실정입니다. 인천을 수변 물류거점도시로 육성하기 위해 아라뱃길을 활성화하고 주변개발을 병행하겠습니다.

■ 물류체계 개선, 관광·레저 중심으로 개발하여 경인 아라뱃길을 활성화

■ 수변 물류거점도시로 조성

-인천항, 인천·김포공항, 한강과의 연계성을 강화

인천 장애인 평생교육관 건립

장애인에 대한 교육기회는 경제적 여건과 이동의 제한으로 비장애인에 비해 열악한 실정입니다. 장애인이 좋은 교육의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인천 장애인 평생교육관 건립을 지원하겠습니다.

■ 인천 장애인 평생교육관 건립

- 지역장애인을 위한 자기계발 평생교육 프로그램 개발
- 장애인의 취미활동 등 교양교육, 취업교육, 취업정보 제공

인천 도시철도 2호선 조기 개통

인천 도시철도 2호선 건설은 당초 2014년도 인천아시안게임에 맞추어 개통할 예정이었으나, 인천시 재정이 어려워지면서 현재는 2016년도에 완공하는 것으로 계획이 변경되었습니다. 상대적으로 낙후된 인천 서북부 지역의 균형발전과 주민들의 교통편익을 위해서는 조속한 개통이 필요합니다.

■ 사업비 지원을 통한 인천 도시철도 2호선 조기 개통

인천항 경쟁력 제고

항만 기능을 활성화하여 동북아 물류중심도시로 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국가적 지원이 필요합니다. 현재는 항로 수심이 14m로 계획되어 있어 5만톤급 선박만 통행이 가능합니다. 항로 수심을 최소 16m로 확보하고 10 ~ 15만톤급 선박이 이용가능 하도록 하고 미주, 유럽 등 대양노선으로 운항이 가능하게 하여 인천항을 동북아 최고의 물류중심 항구로 만들겠습니다.

■ 대형선박 접안이 가능하도록 인천신항 항로 증심(14m → 16m)